

6세대 HBM4 샘플 극찬... 젠슨 황 "SK가 넘버원"

"너무 좋다. 자랑스럽다. SK가 넘버원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에서 SK하이닉스를 극찬했다.

하이닉스가 만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HBM4 샘플을 소개하자 황 CEO는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에 HBM3E(5세대)를 공급하는 하이닉스는 하반기부터 HBM4를 양산할 계획이다.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 2025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다.

삼성전자와 협력을 언급한 황 CEO는 "전 세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것처럼 통신도 소프트웨어로 정의돼야 한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노키아교세라 등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인 만큼 황 CEO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도체와 AI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황 CEO는 21일 타이베이 오리엔탈만다

컴퓨텍스 2025 누비머 "AI 중심 제품 구축 돕겠다" 선언
일거수일투족에 세계가 관심... '락스타 CEO' 행보 이어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0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시관에서 개최된 '컴퓨텍스 2025'에서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 전시된 HBM에 사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린 B2에서 열린 엔비디아 미디어 설명회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언급했다.

황 CEO는 36개 그레이스 CPU와 72개 블랙웰 GPU가 탑재된 GB200 NVL을 탑재한 차세대 인프라 플랫폼 GB200 NVL

72의 성능을 강조했다. 그는 GB200 NVL 발표를 통해 OEM 파트너들이 자체 AI 인프라 구축을 주도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황 CEO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OEM주

문사 위탁 생산사에서 공급되며 X76 아키텍처 기반으로 기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와 완벽 호환된다"며 "글로벌 파트너 생태계와 함께 기업들이 AI를 자사 인력에 접목하고 공장을 자동화하며 AI 중심 제품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황 CEO는 20일 엔비디아 협력사 부스를 찾았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타이베이 난강 1전시관에서 SK하이닉스 HBM 제품과 엔비디아 GB200 등에 서명하면서 "젠슨 황은 SK하이닉스를 사랑한다"라고 썼다.

황 CEO는 이번 컴퓨텍스 2025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꼽힌다. 현재 AI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꼽히는 그는 여러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에서 주인공격 위치를 차지했으며 발언 한마디에 관련 기업 주가가 요동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그가 대만계 미국인이고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TSMC 또한 대만 기업이라는 점에서 황 CEO에게 관심이 쏠렸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2시간 만에 뇌종양 진단... 英서 초고속 검사 개발

치료 앞당겨 생존율 향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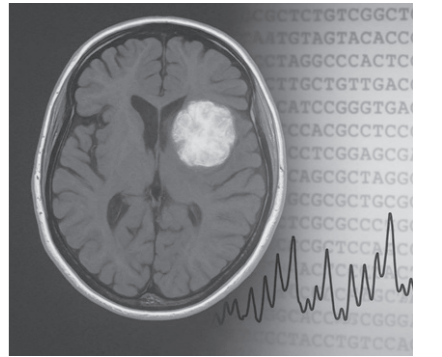
영국 연구진이 뇌종양을 2시간 이내에 유전자 수준에서 진단할 수 있는 초고속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8주가 걸렸지만 이제는 수술 중에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팅엄대학교와 노팅엄대학교병원 소속 연구진은 20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신경종양학(Neuro-Oncology)'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뇌종양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수술 중 실시간 유전자 분석을 통해 100% 정확도로 진단에 성공했다.

이번 기술은 유전체 분석 장비를 활용해 종양 세포의 DNA에서 '메틸화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메틸화는 유전자에 붙는 화학 표지로 종양마다 고유한 메틸화 패턴을 분석, 그 차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종양인지 구별할 수 있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환자는 조직 검사



영국 연구진이 뇌종양을 2시간 이내에 유전자 수준에서 진단할 수 있는 초고속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지체 없이 시작될 수 있어 치료 성공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기존 검사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정확도도 높아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국 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확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가상자산 이상거래 되풀이하면 형사처벌 대상

거래소 예방조치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1년 이상 유기징역·3~5배 벌금·최대 2배 과징금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상 거래를 되풀이하면 불공정거래 혐의로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경고성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일한 이상 거래를 반복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판단, 금융당국에 통보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 주체는 20:30대 젊은 투자자가 50%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일부 이용자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과거 관행대로 매매를 이어가다 제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취하는 예방조치는 경고(1차)와 주문제한 예고(2차)에 이어 주문제한(3차)으로 이어진다. FIU는 이상거래 반복을 적발하면 금융당국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경고 조치를 단순 참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이며, 반복적으로 유사한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예방조치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주문 시스템(APD)을 활용한 고가 매수 반복, 자기계정 간 매수-매도 주문 제

결(가장매매), 복수 계정 간 사전 합의된 거래(통정매매), 미공개 상장 정보를 이용한 선매수, SNS 등을 통한 리딩 후 차익 실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최대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이용자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거래를 해 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몰랐다는 것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거래소의 경고나 제한 안내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같은 유형의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 이상거래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치 사

례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상 거래를 되풀이하면 불공정거래 혐의로 여겨지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경고성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일한 이상 거래를 반복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판단돼 금융당국에 통보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조치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주문 시스템(APD)을 활용한 고가매수 반복, 자기계정 간 매수-매도 주문 체결(가장매매), 복수 계정 간 사전 합의된 거래(통정매매), 미공개 상장 정보를 이용한 선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리딩 후 차익 실현 등이 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노바백스 '뉴백소비드' FDA 정식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Nuvaxovid)'를 19일(현지시간) 정식 승인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천식, 당뇨-암-비만-흡연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12세 이상 성인이다.

기존 mRNA 기반의 화이자의 코미나티(12세 이상)나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18세 이상) 백신 대비 일반 건강 성인에게는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 점에서 접종 대상은 제한적이다.

관련해 FDA는 고위험군 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4상 임상시험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노바백스는 이번 승인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사노피로부터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마일스톤(프로젝트 비즈니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급 금액을 수령하게 됐다.



뉴백소비드(Nuvaxovid).

뉴백소비드는 mRNA 기반이 아닌 재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개발돼, mRNA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거나 기존 백신을 기피하는 일부 계층에게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2~8도에서 냉장보관이 가능해 기존 mRNA 백신 대비 유통 및 보관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노바백스는 2025~2026 복반후 환절기 시즌 대비 백신을 가용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인한서 플러스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